

Venture Focus

비트컴퓨터

안양교도소에 원격진료시스템 가동

www.bit.co.kr



의료정보 전문회사인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전진옥)는 안양교도소에 원격의료시스템 구축을 완료, 10월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엑스레이·초음파·심전도·이비인후과 장비 등을 통해 내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의 범위까지 진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의사가 환자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환자의 각종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모든 자료는 환자관리프로그램에 의해 환자별로 날짜에 따라 자동으로 데이터화된다. 처방전도 교도소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2500여 명의 수용자는 외부 병원에 가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의사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양교도소 홍남식 과장은 "이번 원격의료시스템 도입을 통해 취약했던 교도소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보탬이 되고 수용자 인권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원격의료시스템은 산간벽지, 도서지역, 교도소 등에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포뱅크

핸드폰 TV에 문자 보내는 메시지는 TV 개발

www.infobank.net

인포뱅크(대표 박태형)는 시청자들이 핸드폰과 디지털 데이터 방송에 양방향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메시지 TV'를 개발했다.



기존의 방송이 방송국의 정보를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데이터 방송은 시청자의 요구에 의해 실시간으로 시청자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환경을 제공하는 방송이다. 그 중에서도 인포뱅크의 메시지는 TV는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시청자가 휴대폰에서 TV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TV에서 휴대폰으로 또는 TV에서 TV로도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채널이다.

인포뱅크는 국내 주요 DMC 사업자인 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KDMC), 브로드밴드솔루션즈 및 복수중합유선방송사업자인 큐릭스 등에 제공해, 본격적인 디지털 데이터 방송의 일인인 양방향 TV 문자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인포뱅크 이달호 팀장은 "향후 인포뱅크는 동일한 케이블 방송에 가입된 시청자끼리의 문자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블 방송에 가입된 전국의 시청자들과도 문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레인콤

MP3 플레이어 중동·아프리카에 수출

www.reigncom.com



레인콤(대표 양덕준)은 중동·아프리카로 MP3 시장을 개척해 1억 2000만달러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레인콤은 아랍에미리트의 샤라프그룹(대표 Mohammad Shara)과 3년간 미화 1억 1700만달러(한화로 약 123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10월 19일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샤라프그룹은 오는 2008년까지 아이리버 MP3 제품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케냐의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20여 개국 전역에 팔게 된다. 현지에서는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MP3플레이어 시장 규모는 각각 연 200만대, 100만대에 달할 정도로 시장 초기 단계이며, 내년에는 5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기봉 레인콤 마케팅부서 Sales 그룹 이사는 "이들 지역은 그동안 레인콤이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시장이었으나, 이번 계약 덕분에 월 1만~4만대 수준의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레인콤은 지난 8월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 데 이어 이번 중동 진출과 함께 남미 시장 개척에 나서는 등 신시장 개척에도 진입할 계획이다.

질시루

3개월 지나도 쫄깃한 레토르트떡 개발

www.jilsiru.com



질시루(대표 박용배)는 3개월이 지나도 쫄깃한 떡을 맛볼 수 있는 레토르트떡을 개발했다. 기존의 전통 떡은 만든 지 2~3일 후면 굳어져버려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반면 질시루에서 개발한 케익떡 시리즈는 햇반이나 즉석죽에 사용되고 있는 레토르트 용기를 이용해 3개월간 저장이 가능케 했다. 무균충전포장을 통해 떡의 변질을 막아주며 먹고 싶을 때 전자레인지나 찜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다. 식품벤처기업 질시루는 케익떡 시리즈로 2004·

(Venture Digest)는 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립니다.

신제품, 신기술, IR소식 등 알고 싶은 뉴스를 보도자료(기사, 사진)와 함께 협회 홍보팀으로 보내주세요.

협회 홍보팀 임현수(02-6009-4100, 내선 301, 팩스 02-6009-4115, E-mail : hongbe@kova.or.kr)

2005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와 도쿄식품박람회, 2005 타이베이식품박람회 등 세계적인 규모의 박람회에 참여해 국내·외국인들의 기호도 조사를 마쳤다.

질시루 관계자는 "김치 이후 제2의 세계적인 한국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 전통 떡의 연구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세계시장으로 우리 떡을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카 인 터 넷

웹 보안솔루션 2종 출시

www.inca.co.kr



인카인터넷(대표 주병희)은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제품인 '엔프로텍트 웹파이어월'과 웹 취약점 분석 및 실시간 침해 대응 모니터링 제품인 '엔프로텍트 웹스캔'을 출시했다.

두 제품은 국내 환경에 특화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의 유출 방지 및 홈페이지 변조 방지, 웹 트리(Web Tree) 기반으로 자동 학습된 규칙에 대해 실시간 적용을 수행해 규칙에 위반된 모든 접속을 실시간 차단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 웹 서버와 무관하게 ID 및 암호유출 방지를 위한 가속기 기반의 시큐어소켓레이어(SSL)를 지원해 중요 정보 유출방지와 홈페이지 위·변조를 방지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DOS/DDOS) 및 웹 자동 대응 등 웹 보안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인카인터넷 주병희 대표는 "최근 국내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각종 해킹사건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신제품이 해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니 닥 스

국내 최초 PDF 전자책 뷰어 출시

www.unidocs.co.kr



유니닥스(대표 정기태)는 국내 최초로 PDF문서를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뷰어 제품인 ezPDF Reader1.0을 출시한다.

ezPDF Reader는 PDF파일만 있으면 전자책처럼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종이책을 보듯이 책장을 넘길 수 있는 효과를 준다. 또한 확대와 축소가 자유로우며 목차검색과 해당 단어의 검색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ezPDF Reader는 PDF전용 전자책 뷰어 솔루션이기 때문에 PDF문서 자체를 전자책 형태로 자연스럽게 구현함과 동시에 별도의 전자책을 만드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한 DRM Client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전체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아서 다운로드와 설치가 편리하며, 로고 등의 Customizing이 가능하다. 파일오픈 속도는 1초~3초 사이로 매우 빠른 편이다.

윈 디 소 프 트

액션 게임 '갯앰프드'에 할로윈 이벤트 실시

www.windyzone.com



윈디소프트(대표 이향창)에서는 오는 6일까지 3D 액션 게임 '갯앰프드'에 할로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첫번째는 유령헤드, 마술사 모자, 마법요정 모자 등의 치장용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특별 판매하는 '할로윈 아이템 특별판매 이벤트'다. 두번째는 이벤트기간 동안 할로윈 분위기가 나도록 자신의 캐릭터를 스킨으로 제작해서 도전스킨왕 페이지에 올리면, 심사를 통해 3등까지 리얼머니를 제공하는 '할로윈 스킨왕 이벤트'. 세번째는 결제동의서를 보내는 모든 유저에게 리얼머니와 대걸레 무기 5개를 제공하는 '결제동의서 이벤트'다.

윈디소프트 조현준 사업팀장은 "이번 할로윈 이벤트는 최근 할로윈 데이가 국내에서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유저들에게도 특별한 재미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이벤트의 취지를 밝혔다.

네 트 빌

국내 최초 Drag&Drop 방식 미니홈피 선보여

www.netville.co.kr



네트빌(대표 문기찬)은 최근 오픈한 홈페이지 더토크(www.thetalk.co.kr)에서 국내 최초로 Drag&Drop 방식의 미니홈피인 필로그(feed+log)를 선보였다.

필로그는 기존의 싸이월드나 다음 플래닛과 같이 고정된 메뉴들에서 스킨만 바꿀 수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 메뉴의 위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또 미니홈피의 전 영역이 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체를 꾸밀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과 공간 배치도 가능하다. 각각의 메뉴들은 Drag&Drop 방식으로 사용자가 메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 같은 스킨과 아이템을 사용해도 모두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네트빌이 운영하는 더토크는 무분별한 쪽지와 채팅 신청으로 난무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양하고, '36.5°C 연애감성 커뮤니티'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이날로그적 연애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감성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이다.